남북한 통합 국어 사전 구축을 위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dictionaries

백지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jeoid@hanmail.net

Ji-Won Baek, Dept. of Lib. and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을 대상으로 현행 남북한 국어 사전의 통합 유형 및 통합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남북한 통합 국어 사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서론

분단 이래로 심화되어 온 남북한어간 이질화는 일상적인 의사 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물론, 남북의 자료가 공존할 때 색인과 정보 검색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에 남북한 통합 정보 검색을 위한 도구로서 남북한 통합 국어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남북한 각각의 대표적인 국어사전을 대상으로 하여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양자간의 동질성과 이질성 등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통합된 국어 사전 작성을 위한 통일된 구조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남북한어 각각에 대한 대표성과 규모 및 최신성의 조건을 고루 갖춘 남한의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연구원, 1999)』과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92)』이다.

분석의 측면은 편찬의 배경 및 특징을 비롯하여 표제어의 표기, 배열, 어휘의 형태와 뜻, 뜻풀이 방식의 차이와 사전 기술 요소 및 구조의 차이 등이다. 한편 본고에서 괄호 안에 제시한 용어례는 '/'를 기준으로 왼쪽이 남한, 오른쪽이 북한의 것임을 밝혀둔다.

2 남북한 사전의 특성 및 이질성

2.1 편찬의 배경 및 특징

분석 대상인 두 사전은 정부 주도로 편찬되어 남북한의 최근 어문 규정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점에 있어서 규범사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사전에 수록된 표제어를 비롯한 각종 사전 요소와 형식은 양국 언어의 실체이자 표준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은 국립국어연구원, 즉 남한 국가기관이 편찬한 최초의 국어 사전으로서 국가가 제정한 어문 규정을 완벽하게 적용하고자 하였다. 표제어 수는 44만여 항목이며 그 중 7만 여에 달하는 북한어를 수록한 점이 특징이다.

한편 『조선말대사전』(이하 『조선』)은 북한의 사전편찬 담당 국가기관인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기념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는 가장 최근에 북한어를 종합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사전으로 표제어의 수는 33만여 항목에 이른다.

2.2 표제어의 표기

남북한어는 음소의 표기에 있어서 자음의 표

기와 관련하여 두음법칙(예: 연습/련습)[1], 합성어의 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현상(예: 이빨/이발), 음운 탈락 현상(예: 망치/마치), 그리고 모음의 표기와 관련하여 어간 모음의 성질에 따른 어미의 변화 차이(예: 개어/개여) 등을 보인다. 또한 사잇소리(예: 깃발/기발), 접미사 '-이'의 표기(예: 배불뚝이/배불뚜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외에도 외래어 표기의 차이(예: 그룹/그루빠), 모음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예: 외치다/웨치다), 발음에 관계없이 한자음을 고정시키려고 하는 북한에서의 규정에 의한 차이(예: 규율/규률(規律)), 남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ㅣ' 모음 동화 현상을 수용함에서 비롯된 차이(예: 헤엄/헤염) 같은 경우가 있다. 또 된소리에 있어 남한에서 평음인 것을 북한에서 된소리로 적는 경우(예: 원수/원쑤)[2], 이와 반대로 남한에서 된소리로 적는 것을 북한에서는 평음으로 적는 경우(예: 손뼉/손벽)가 있다(유진영 1995; 김민수 외 1997).

2.3 표제어의 배열

사전에서의 표제어 배열은 자모의 순서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한 간 자모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되어 온 것은 모음과 'ㅇ' 의 위치, 이중모음의 순서, 복자음의 위치 등의 순서가 엇갈려 나타난다는 점이다.

『표준』에서는 1990년의 '한글맞춤법 [붙임2]'의 원칙에 따라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의 이른바 '가각까' 배열을 하고 있다.

반면 초성 'ㅇ'의 음가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ㅐ ㅒ ㅔ ㅖ ㅚ ㅟ ㅢ ㅘ ㅝ ㅙ ㅞ'의 소위 '히해까아'순(최석두 1999)으로 배열하고 있다.

또한 『조선』은 자모 낱개는 음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 모음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소리로 실현되는 것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표준』과는 달리 'ㄱ'이 아닌 '가'가 제일 앞에 배열된다. 한편 남북한은 자음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예: 기역/기윽, 디귿/디읃 등) 이에 따른 배열 또한 달라지게 된다.

한편 『조선』은 이두, 방언, 고어를 부록으로 따로 싣고 있는 것에 비해 『표준』은 북한어, 방언, 옛말, 비표준어를 표준어와 함께 자모 순서로 배열한다. 만일 통합 사전에서 『표준』처럼 방언, 고어, 이두 등을 통합 배열한다면 자모의 종류와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되므로 배열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2.4 어휘의 형태와 뜻

① 뜻은 같으나 표기가 다른 말

이 부류에 속하는 어휘는 북한의 말다듬기[3]에서 비롯된 것(예: 팬더곰/참대곰)이거나 남북한의 어문 규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예: 휴게실/휴계실), 혹은 기타의 이유로 표기가 상이한 것들(예: 귀를 기울이다/강구다)이다.

② 표기는 같으나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

체제나 이념의 차이 혹은 각자의 사회·언어 생활 차이에서 비롯된 의미상의 차이이다.

조동(調動) 『표준』 : 파견함
『조선』 : 조직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로 직장을 옮김

③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말

어휘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의미에 남북이 새로운 개념을 부여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천리마[철-][명] 하루에 천리씩 달리는 말이라는 뜻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

---

1)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표준』에서는 '연습[1]', 연습[2]'와 같이 표기한 것이 『조선』에서는 '련습'과 '연습'으로 형태 및 의미상 분할 배열되어 그 미세한 뜻의 차이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하나 남한의 사용자들이 찾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조선』에는 '원수'와 '원쑤'가 독립된 표제어로 수록되어 있다.

3) 1960년대 북한은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많은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었으며 이는 남한의 국어순화운동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이처럼 남북한에서는 새로 만든 말을 사전에 수록하고 사용함으로써 남북의 언어 이질화가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처나아가는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상을 상징적으로 이르는 말 ---『조선』에서.

④ 새롭게 생성된 말

사회의 발전이나 변화 등 필요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 각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상대방 국가에게는 생소한 어휘이다.

종파분자[명] 종파행위를 일삼는 반당적이며 반혁명적인 분자 ---『조선』에서.

2.5 뜻풀이의 방식

『표준』과 비교하여 『조선』의 뜻풀이 방식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당의 유일사상'에 따른 사전적 처리이다. 이것은 표제어에 대해 이른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가 정식화해 준 풀이를 일반적인 뜻풀이 앞에 고딕체로 먼저 싣는 것(이병근 1993)으로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공산주의[명]
≪공산주의는 인류의 최고리상이며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지적 및 육체적 발전이 최고단계에 이르며 모든 사람들에게 문화적이고 유족한 생활이 보장됩니다.≫<**김일성**저작집 22권, 380페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또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려는--(이하생략)---『조선』에서.

또한 일반적인 뜻풀이 뒤에 체제 이념에 바탕을 둔 비객관적인 뜻풀이나 표제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예문을 덧붙이기도 한다.

에이즈[명] 《의학》 특수한--(중간생략)--전염병. 이 병균은 인류의 대량학살을 위한 침략적목적밑에 미국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세계적 범위에서 퍼지고 있다.---『조선』에서.

2.6 사전 기술 요소 및 구조

통합 사전 구축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면의 통일 또한 중요하다. 『표준』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은 기술 형식을 갖는다.

표제어어깨번호(한자 혹은 원어) [발음] 품사 범주 [학문영역] ⑴ 품사가 다른 동일 표제어 ⑴ 【문형정보】 ① 뜻풀이 ¶용례 // 다른 용례 ≪인용례 출전≫ ② =동의어

<그림 1> 『표준국어대사전』의 사전 기술 형식

반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기술 형식을 갖는다.

표제어어깨번호[발음] 소리의 고저·장단 [품사] (품사의 성격)≪학문영역≫① 뜻풀이… ‖ 예구 ㅣ 예문 1/ 예문 2 … ② 뜻풀이 … D … D ③ 뜻풀이 … △ … (한자)[외래어 원어] (빈도수) ◇ …(출전의 장르≪출전≫ 쪽수)

<그림 2> 『조선말대사전』의 사전 기술 형식

위의 비교를 통해 『조선』이 갖는 기술 요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표제어 발음의 높낮이를 1~3으로 표시하고, 뜻풀이 끝에 어휘 빈도수(2~46,612 사이)를 제시한다. 기술 형식에서 볼 수 있는 'D(반달 표시)'는 아직 옹근뜻(자립적인 뜻)으로까지 갈라지지 않은 반뜻(자립적인 뜻의 포괄범위 안에 존재하는 불완전한 뜻)을 옹근뜻과 같은 번호 아래서 뜻풀이 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는 같은 부류의 단어 묶음 앞에 사용하는 부류어 기호이다. 또 '◇' 표시는 해당 표제어로 시작하는 성구나 속담 앞에 쓰이는 기호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표준』에서는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것들로서, 그 각각은 남한의 관련 학자들에 의해 나름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조선』에서는 한자어임에도 한자가 부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표준』에 비해 한자 제시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표준』의 경우 학문 분야를 51개로 나눈데 반해 『조선』의 경우 46개로 나누어 전문 용어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통합 국어 사전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학문 분야 구분의 통일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현행 남북한어 통합의 유형

3.1 일방적인 흡수 통합

『표준』에서 『조선』의 7만여 북한어를 수용하고 있는 형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에 수록된 『조선』의 어휘 중 뜻은 같으나 형태상의 차

이를 보이는 단어들은 『조선』에서 따온 어형 다음에 '㊣' 표시를 한 후, 뜻풀이는 하지 않고 같은 뜻의 남한어를 알려준다. 또한 북한의 말 중에서 남한의 말과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말에 대해서는 남한 말의 뜻풀이 다음에 북한에서의 뜻을 보여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일부 표제어간 상호 참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남한 사전 본문에 북한 사전의 어휘와 풀이를 그대로 옮겨 남한 어휘와 섞어 놓고 자모순으로 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4].

이처럼 한 편에서 다른 한 편의 것을 그대로 흡수하는 통합 방식은 어휘 및 뜻풀이의 다양성은 증가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어휘간의 정확한 참조 및 설명이 없이는 양쪽의 이용자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별다른 효용을 주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사전에서 그대로 데이터를 가져다 씀으로 인해 북한 사전이 개정될 경우 통합 사전 역시 개정의 부담을 안게 된다.

3.2 상호 비교를 통한 병렬 통합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계획인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구축되고 있는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은 제목 그대로 남북한어를 표기, 발음, 문법, 의미 등의 측면에서 상호 비교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항목간 비교를 중심으로 병렬 통합을 추구하는 경우 개별 표제어에 대한 양측의 관련 데이터를 적절한 항목으로 나누어 통합·배열함으로써 자료의 풍부함이나 상세함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구조에 표준화된 형식으로 데이터를 기술해야 하므로 사전 구축 이전에 표준화된 사전 정보와 어문 규정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는 용어간 상호 참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병렬 통합으로 인해 하나의 표제어에 대한 사전 정보가 지나치게 방대하고 산만해져 자료로서의 가치는 뛰어나지만 이용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제약이 있다.

4) 두음법칙의 차이로 인해 『표준』의 'ㄹ'로 시작하는 표제어 대부분은 북한어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이다(정호성 2000).

4 결론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부쩍 무르익은 지금, 남북한이 서둘러야 할 것은 바로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언젠가는 반드시 남북한 공통의 국어 사전이 편찬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한은 물론이거니와 북한 국어 사전의 성격과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양자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후일 남북한 통합 사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되는 어문 규정 통일, 상이한 어휘의 형태와 뜻에 대한 조정, 남북한 사전의 각종 기술 형식의 표준화 및 효과적인 통합 방식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민수 편저. 1997. 『김정일 시대의 북한언어』. 서울 : 태학사.

문화관광부. 1999. 『한민족 언어 정보화 : 남북한 언어 비교 사전』.

유진영. 1995. 『남북한 국어사전 비교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병근. 1993. 남북한의 사전편찬 비교. 『북한연구』. 13 : 106-127.

정호성. 2000. 『표준국어대사전』 수록 정보의 통계적 분석. 『새국어생활』. 10(1) : 55-72.

최석두. 1999. 북한 관련 문헌처리를 위한 시소러스 개발. 『제 2회 전문용어언어공학 심포지움』. 대전 :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